

잊지 못할 은사 김명희 교수님



권 영 진(정치외교학과 66)
진 한국외교협회 사무총장

7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외교학과의 주춧돌이 되어 학과 발전의 튼튼한 기초를 쌓아주신 김명희 교수님은 정외과 제1회 졸업생으로 미국 뉴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모교에서 후진양성에 많은 정성을 쏟으신 분입니다.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주신 이만섭, 김원기 등 두 분의 국회의장과, 이동원, 박정수, 한승수, 강경화 등 네 분의 외교부장관, 그리고 정치와 외교는 물론이고 그 밖의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쓰임 받은 수많은 정외과 출신 인재들의 만형으로서 일생동안 큰 버팀목이 되시고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신 그야말로 연정인(연세 정외과)의 상징이며 전설적인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랴 미팅하랴 바쁜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향토장학금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용돈을 마련해 보려고 입학 초 4월 어느 날 추헌수 학과장님을 면담하여 가정교사 자리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마침 찾는 분이 계신다고 알려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에게 큰 언덕이 되어주신 김명희 교수님입니다. 그 당시 정법대학장이셨던 김 교수님은 어느 날 일과 후 연세동산에 자리 잡은 교수님의 사택으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서대문 적십자병원 김재섭 방사선과장의 아들이자 교수님의 조카인 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를 계기로 꿈에 부풀었던 대학생활이 더욱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초년생시절 교내서클활동의 하나로 유엔한국학생협회(UNSA)에 가입하여 전국대학생모의유엔총회를 연세대가 주최하게 되었을 때 김 교수님을 평가교수로 모시게 되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미 세 차례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참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지도를 해주셔서 참석한 각 대학 대표들에게 명불허전임을 실감나게 해주셨습니다. '69년에는 대통령 3선 개헌 반대운동으로 연일 경찰들과 맞서다가 어느 날 그들을 이화여대 후문 쪽 코너로 몰아넣어 경찰봉과 방패를 빼앗아 정외과 학회실에 보관하고 언더우드 동상 앞에 모여 밤새워 연좌데모를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박대선 총장님과 함께 여학생들 편에 연세우유를 가지고 나오셔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던 고마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 교수님께서서는 정치학 특강에서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거리가 생긴다’(人無遠慮 必有近憂)는 논어 위령공편의 명구를 인용하여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으며, 유경열, 송재석 등 촉망받던 정외과 ROTC 7기생 선배 세 분이 육군소위 임관 후 광주보병학교 유격훈련 과정에서 희생된 사건이 발생 하였을 때 이 문제를 군 당국에 제기하셔서 우리 8기생은 특과로 알려진 병기병과 통역장교로 네 명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병과 배치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는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좋아만했으나 나중에 7기 선배들의 희생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고나니 오히려 그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앞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검도로 몸을 단련하셔서 그런지 정치학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한핸드볼연맹 회장, 대한유도회 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등 체육발전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청주대학교 초대총장, (사)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연세대 총동문회 회장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자유의 연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하신 품성으로 늘 편안하게 미소를 보이시며 학자적 품격이 자연스레 느껴지던 김 교수님께서서는 국회 의정활동과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참가 등 무척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75년 봄 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셨는데 그 고마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을 마치고 교수님댁을 방문하여 사모님으로부터 결혼생활에 관한 조언을 듣고,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실상을 직접 보며 얻었던 교훈은 철새처럼 몇 년마다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며 살게 되었던 저희 부부에게 안정된 가정생활의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십여 년 전 많은 후학들의 애도 속에 87년간의 뜻 깊은 인생여정을 마무리하고 떠나신 김명희 교수님의 훌륭한 스승상은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던 수많은 우리 연정인의 가슴에 밝고 큰 등대와도 같이 오래도록 훌륭한 귀감이 되실 것입니다.